

〈송기호 교수의 우리역사읽기〉 6책 정오표

쪽	행	수정 전	수정 후
19	4	사랑하는	사랑하지 않는
37	3	거머졌다.	거머쥐었다.
56	7	3년(1580)	13년(1580)
65	하5	장희빈(?~1701)	장희빈(1659~1701)
78	9	그가 죽자	그가 죽으려 할 때
80	그림	송인전	송의전
101	8	지켜볼 수 있었다.	지켜보았다.
127	하10	그러기에 현종은 국내에서 올린 시호만 있다.	이듬해에야 장각(莊恪)이란 시호를 받았는데, 이 사실은 숙종실록에서 찾을 수 없다. 조선에서는 청나라로부터 왕의 시호를 받은 것을 숨겼기 때문이다.
128	하5	그러기에 당 태종, 신라 태종, 고려 태종, 조선 태종을 보면 각 왕조에서 남긴 업적이 비슷하다.	그러기에 당 태종, 신라 태종, 조선 태종을 보면 각 왕조에서 남긴 업적이 비슷하다. 그리고 고려 광종도 여기에 비길 수 있다.
144	12	강등되었고	강등되었고, 다음 왕은 즉위한 해부터 곧바로 원년으로 삼았으며,
157	하2	밤은 아들이요 대추는 딸이라	밤은 딸이요 씨가 있는 대추는 아들이라
166	10	숭상하는	신성시하는
168	8	잘못한 때문	잘못했기 때문
175	2	취우	치우
175	13	왕에게 허물을	왕의 허물로
181	하11	그대로	그래도
191	2	8년(1681)	8년(1682)
208	하4	않지	않지
208	하3	다.(그림 11)	다.(그림 11) 우리나라에서도 처마 아래 보뽕목에 작은 가지창을 꽂아놓았다.
224	12	중국, 일본, 베트남에서는 있었지만, 일본에서는	중국, 베트남에는 있었지만, 일본에는
308	1	숙종	성종
316	하7	의종	명종
319	9	남인	서인
327	3~4	김종서(1390~1453)	김종서(1383~1453)

쪽	행	수정 전	수정 후
330	7~8	정공(기원전 509~495)과 애공(기원전 494~468)	정공(기원전 509~495 재위)과 애공(기원전 494~468 재위)
334	하4	인조 3년	인조 23년
344	하3	신종	『고려사』 신종
350	하3	정(正)	정(正 또는 政)
350	하1	초(楚)	자초(子楚)
360	하1	바꾸어버렸다.	바꾸어버렸다. 흐지부지란 우리말은 원래 말하기를 꺼리고 감추어 드러나지 않게 한다는 뜻인 휘지비지(諱之祕之)에서 나온 것으로서, 20세기 들어 등장하였다고 한다.